"탄핵 가능" vs "잘못 없다"…美특검 결과 공방

뮬러특검보고서 공개 이후
민주 "워터게이트 보다 나빠"
트럼프측 "아무런 문제 없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러시아 스캔들' 의혹에 대한 특검보고서 내용이 18일 공개된 이후 민주당과 트럼프 진영 사이에 날 선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민주당은 대통령 탄핵까지 거론하며 공세에 나섰고 트럼프 대통령 측은 "잘못한 것이 없다"며 맞섰다.

민주당의 애덤 시프 하원 정보위원장은 21일(현지시간) ABC방송 '디스 위크'와 인터뷰에서 "이번 사건에서 특히 대통령의 사법방해 의혹은 닉슨 전 대통령의 워터게이트 사건보다 훨씬 더 나쁘다"고 말했다.

시프 위원장은 "대통령 후보이자 현재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의 (미 대선) 개입에 저항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를 환영했다는 사실은 닉슨이 했던 그 어떤 행동도 훨씬 능가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폭스뉴스 선데이'와 인터뷰에선 민주당 일각의 탄핵 추진 주장과 관련, "그건 매우 중요한 결정이 될 것"이라며 "탄핵이 국가를 위한 최선의 길이 될 것인지를 몇 주 안에 결정하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제럴드 내들러 하원 법사위원장도 NBC '밋 더 프레스'와 인터뷰에서 "모든 증거를 검토해야 한다"면서도 "그것에 도달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며 탄핵 검토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는 특히 사법방해 의혹과 관련, "많은 증거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로버트 뮬러 특검은 현직 대통령을 기소할 수 없다는 법무부의 의견 때문에 대통령을 기소하는 것을 자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인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가 2016년 트럼프타워에서 러시아 관계자들과 만나 힐러리 클린턴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에 관한 정보 입수에 대해 논의한 것과 관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와 다른 사람들이 왜 기소되지 않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 변호인인 루돌프 줄리아니 변호사는 CNN '스테이트 오브 더 유니언' 인터뷰에서 러시아와의 접촉에 대해 "잘못된 것이 없다"며 "러시아인들로부터 정보를 얻는 것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범죄는 없다"면서 "우리는 도덕의 영역으로 들어가려는 것인가. 검사들이 보는 것은 도덕성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NBC 인터뷰에서도 '외국의 적이 훔친 자료를 갖고 선거운동을 해도 된다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그건 도난당한 자료에 달려있다"고 즉답을 피하면서 접촉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켈리앤 콘웨이 백악관 선임고문은 ABC 인터뷰에서 러시아 측이 2016년 미 대선에 개입, 트럼프 후보의 선출을 위해 노력했다는 특검의 조사 내용과 관련, "트럼프 대통령이 더 나은 후보였기 때문에 대선에서 승리한 것"이라고 말했다. 콘웨이에 이어 같은 프로그램에 나온 시프 위원장은 이와 관련, 콘웨이 고문은 러시아가 트럼프 캠프를 도우려 했다는 사실조차 인정하지 않았다면서 "콘웨이로부터 또 다른 대안적 사실을 들었다"고 비판했다.

'대안적 사실'은 2017년 초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 모인 군중 규모를 놓고 당시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이 틀린 내용을 말했다고 NBC 뉴스 진행자가 지적하자 콘웨이 고문이 "스파이서는 대안적 사실을 준 것"이라고 답하면서 나온 표현이다. /연합뉴스

스리랑카 연쇄 테러 사망 290명으로 늘어 용의자 13명 체포

스리랑카에서 부활절인 21일(현지시간) 발생한 연쇄 폭발로 사망자 수가 290명으로 늘었다고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라닐 위크레메싱게 총리는 이날 수도 콜롬보 등 8곳에서 연쇄적으로 일어난 폭발로 228명이 숨지고 500명이 다쳤다고 밝혔다. 또한 용의자 13명을 체포했으며, 이들은 모두 스리랑카인이라고 말했다.

현지 경찰은 체포된 용의자 가운데 10명을 범죄수사부에 넘겼다고 전했다. 경찰은 또 용의자들이 콜롬보로 이동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차량과 용의자들이 사용한 은신처를 찾았다고 AP통신은 전했다.

루완 위제와르데나 국방장관은 이번 연쇄 폭발을 종교적 극단주의자들이 저지른 테러 공격으로 규정했다. 마이트리팔라 시리세나 대통령은 이번 사건을 수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임명했다. 이와 함께 dpa 통신은 급조한 폭발장치가 콜롬보에서 30km 떨어진 공항 근처에서 발견돼 뇌관을 제거했다고 전했다. 공군 대변인은 해당 장치가 반다라나이케 국제공항에서 2km 떨어진 도로에서 발견됐으며, 당시 플라스틱 파이프 안에 있었다고 덧붙였다.

외신에 따르면 이날 오전 콜롬보에 있는 성 안토니오 성당을 시작으로 외국인 이용객이 많은 주요 호텔 3곳에서 거의 동시에 폭발이 일어났다. 비슷한 시각 콜롬보 북쪽 네곰보의 가톨릭교회 한 곳과 바티칼로아의 기독교 교회 등 모두 8곳에서 폭발이 발생했다. /연합뉴스

부활절인 21일 발생한 스리랑카 연쇄 폭발 현장 중 한 곳인 수도 콜롬보 북부 네곰보 소재 성 세바스티안 성당 일부가 파괴돼있다. 콜롬보와 주변 지역의 교회와 호텔 등 8곳에서 발생한 이번 참사로 290명 넘게 숨지고 500여명이 다쳤다. /연합뉴스

우크라 '대통령역' 코미디언 젤렌스키 현실 대통령 예약

결선 출구조사 73% 득표

한때 대통령을 연기했던 코미디언 출신의 40대 초반 정치 신인이 실제로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

21일(현지시간) 치러진 우크라이나 대선 결선투표 출구조사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41) 후보가 73.2%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AFP,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다. 결선투표에서 격돌한 페트로 포로셴코(53) 현 대통령은 25.3%를 얻은 것으로 추산됐다.

초반 개표 결과도 출구조사 결과와 대체로 비슷하다. 52%가량 개표가 이뤄진 가운데 젤렌스키 후보는 73%의 득표율을 기록, 득표율 25%의 포로셴코 후보를 압도하고 있다고 AP통신이 전했다.

우크라이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르면 2~3일 이내에 잠정 개표결과가 나올 수 있으며, 공식 개표결과 발표는 오는 30일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출구조사 결과 등을 통해 승리를 확신한 젤렌스키는 짤막한 연설을 통해 지지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했다. 젤렌스키 후보는 "결코 여러분을 실망하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는 이어 "나는 아직 공식적으로 대통령은 아니지만, 우크라이나 국민으로서 모든 옛 소련 국가를 향해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우릴 보라. 무엇이든 가능하다"고 외쳤다.

출구조사 득표율에서 50%포인트 가까이 뒤진 포로셴코 대통령은 패배를 인정했다. /연합뉴스

박종구의 中國 인물 이야기

〈초당대총장〉

〈178〉 두목

두목(杜牧. 803852)의 자는 목지로 경조 만년 출신이다. 통전을 저술한 재상 두우의 손자다. 이상은과 함께 만당 시대의 대표적 시인이다.

덕종 정원 19년(803) 명문 두씨 집안에서 태어났다. 조부 두우 사촌형 두종 모두 재상을 역임했다. 어려서부터 시와 글을 잘 지었다. 태학박사 오무릉의 제자로 장안에서 공부했는데 그가 지은 아방궁부(阿房宮賦)로 일찍이 문단의 주목을 받았다. 진시황이 지은 장대한 아방궁의 모습을 뛰어난 필체로 묘사해 장래가 촉망되는 인재로 평가되었다. 문종 태화 2년(828) 진사에 급제해 홍문관교서랑으로 공직 생활을 시작했다. 강서선흡관찰사 심전사를 거쳐 833년 회남절도사 우승유 밑에서 서기로 근무했다. 근무지인 양주는 강남에서 가장 번창한 도시로 술과 가무를 마음껏 즐길 수 있었다. 우승유는 지나친 향락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그가 감찰어사로 장안으로 돌아가려 하자 그간의 행적을 보여주면서 앞으로 처신에 더욱 조심할 것을 당부했다고 한다. 후일 양주에서의 생활을 반성해 쓴 시가 유명한 유회(遺懷)다. 835년 감찰어사로 중앙에 잠시 복귀한 후 분사동도가 되어 낙양으로 옮겼다. 덕분에 감로지변의 실패에 따른 환관의 조정공신 숙청에서 처벌을 면하였다. 837년 눈이 멀게된 동생을 치료하고자 양주로 갔다. 다음해 복귀해 사훈원외랑 등의 직을 수행했다. 842년 이후 호북성 황주, 안휘성 지주, 저장성 목주 등 작은 마을의 자사를 지냈다. 무종 회창 연간에는 고공낭중, 지제고, 중서사인으로 봉직했다. 그는 중앙과 지방 직을 여러 차례 역임했지만 고위직에는 못 올랐다. 우이 당쟁이 심화되면서 반대파의 견제를 받았고 할말은 하는 고집으로 적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852년 50세로 죽었다.

이상은과 함께 소이두(小李杜)로 불릴 정도로 이백과 두보와 비교되었다. 시풍이 두보를 닮았다고 소두(小杜)로도 불렸다. 시중 특히 칠언절구(七言絶句)가 뛰어났다. 낭만과 풍류가 넘치는 시가 많았다. 만당 시의 특징인 섬세함과 기교에 능했다. 반면에 평안하고 호방한 시풍을 보여주기도 했다. 대상을 객관적으로 묘사하는 사실주의 보다는 인상주의적 작풍이 강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시 청명절은 음율과 정취가 아름다운 내용으로 평가받는다. "청명절에 가랑비 내려 길가는 사람의 애를 끊네. 주막이 어디인지 물으니 목동은 살구꽃 핀 마을을 가르키네"(淸明時節雨紛紛 路上行人欲斷魂 借問酒家何處有 牧童遙指杏花村) 영화의 아름다운 한 장면처럼 한가로운 시골 마을의 정취가 듬뿍 느껴지는 시라 하겠다.

절강성 호주에서는 어린 소녀의 자태에 반해 청혼하였다. 소녀가 나이 어려 10년 뒤에 하기로 약조하였다. 그러나 장안으로 돌아간 후 10년 넘게 강남으로 내려올 수 없었다. 재상에게 여러번 부탁한 끝에 호주태수로 부임했지만 14년의 세월이 흘러 소녀는 수년전에 시집을 갔다고 한다. 탄화(歎花)라는 시가 탄생한 배경이다. 반면에 호탕하고 우국충정을 노래한 시도 있다. 대표작 진회(秦淮)는 뛰어난 시적 기교와 함께 진지한 사회성을 잘 보여준다. "찬 강물 안개 그득 모래밭 달빛 가득하네. 야밤에 진회에 묵으니 술집 가까이 있네. 술집 여자는 망국의 한을 모르나. 강건너 들려오는 후정화 노래 소리."(烟籠寒水月籠沙 夜泊秦淮近酒家 商女不知亡國恨 隔江猶唱後庭花).

이백·두보에 비견되는 빼어난 시인

시인으로서 주된 관심은 시의 표현 문제였다. 칠언절구에 집착해 기교적 완성에 심혈을 기울였다. 애정을 노래한 시가 많지만 이상은과는 달리 감정 표현을 절제했다. 그는 번진의 위협과 북방 이민족의 변경 침략을 걱정하는 애국시인의 면모도 보여준다. 부국강병을 통해 잃은 강토를 되찾고 왕조를 번성시킬 것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회수와 장강은 당 왕조의 생명선"이라며 국방과 치안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했다. 그는 안보와 용병에 관심이 많아 손자병법에 주석을 달기도 했다. 그의 삶은 사회는 무너져 내리고 앞날은 불투명한 만당 시대를 걱정하는 지식인의 모습을 보여준다. 그러나 정면으로 도전하기에는 심약한 시인의 한계를 노정한다.

회사 사정상 "급매" – 50%가격, 4월 30일까지

수기동, 제일오피스텔

- 광주광역시 동구 천변우로 339 (구,현대극장 바로 옆)
- 20층중 3층, 38평(전용 약 23평)
- 하천방향, **전체 올수리, 사무실 전용**
- 관리비 저렴, 주차편리
- **보5백만원에 월50만원에 임대가능**
- **시세 – ~~1억 3000만원~~**
  급매 – 6500만원
  문의. 010-6834-7400